

# 浪漫主義文學의 問題性

—問題性的 解釋學的 考察—

李 榮 久

## Significance of Romantic Literature

—An interpretation on its significance—

By

Lee young-koo

### <目 次>

- |                          |                                |
|--------------------------|--------------------------------|
| 1. 序                     | 4. Romantik 의 哲學的 釋析           |
| 2. Romantik 과 Roman 의 關係 | 5. Klassik 과 Romantik 의 對立的 關係 |
| 3. Raman 에 對한 考證         | 6. 結—20世紀 文學과의 關係              |

### Abstract

Romantic literature seems to have long ceased to be a subject of interest and discussion. This may be due to the fact that it has already got out of fashion and that, therefore, it has no more serious meaning than a mere form of entertainment which by no means involves any serious problems in the modern sense of the word. It has given way for the multiple literary ideas rushing to the scene especially after the War and has been forced out of sight.

It is, of course, undeniable that "the old fashioned literature" has too many irrelevancies to cope with the modern situation of most complicated mechanism of society and extremely expanded forms of consciousness. Its attitude is too simple, too easy, and too subjective in its inventiveness for that.

In dealing with literature as a form of art of language, however, its aesthetic problems must also be serious subject of study.

In discussing romanticism its definition is hardly necessary since ample definitions hitherto given by many efficient critics make it unnecessary, or rather harmful to its proper understanding to add another. Neither is it necessary to explain its meaning; it would be nothing but another unrewarded repetition of the views of romanticism.

The problem in dealing with romanticism may be to find a certain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rationalistic spirit in the 19th century of science in its infancy and romanticism representing nonrealistic attitude which embraces unreal, fictional and abstract ideas.

### 1. 序

浪漫主義(Romanticism, Romantik)는 文學에서 古典主義, 寫實主義, 象徵主義와 같이 文學史의 한 思潮 流派 또는 運動으로서 받아 드러지는 것이 文學人의 해석이지만 일반인은 흔히 단순한 遊戱의 作品, 通俗的인 意味의 文學藝術을 가르키는 것으로 常識化하고 있다. 그것은 浪漫主義가 19세기 初期에 일어났던 浪漫派文人들의 文學運動으로서 그後 寫實主義나 自然主義에 代替되어 쇠퇴된 文學史의 한 思潮로서 文學人은 기억하고 있다. 또한 近代에서 現代에 이르러 술한 文學思潮에서는 이제 浪漫主義의 文學 理論을 자주 擧論하지 않는 理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一般人의 常識은 단순히 浪漫主義 時代의 作品으로 오늘까지 傳해지는 叙情詩나 小說들이 흔히 戀愛나 感傷的인 內容의 것으로서 옛날 꿈많은 思春期에 읽었던 부담없는 안의 한 글을 상상하기 때문이다. 事實 通俗的인 해석은 浪漫主義는 잔잔한 湖水 위에 비끼는 달빛 속의 詩, 깊숙한 숲속에서 그윽하게 들려오는 퍼리의 메로디 같은 孤獨, 情死에 흐느끼는 애뜻한 사랑의 對話, 中世的인 白馬의 騎士가 소녀의 영혼을 咏歎하는 幻想的 小說, 꿈을 먹고 사는 夢想的 主人公들, 이러한 이미지가 現代人의 거처를 숨길, 각박한 生存的 문제, 文明의 批判을 담은 哲學的 難解性 같은 現代文學과는 對稱의 立場에서 받아 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浪漫主義는 19세기에 일어난 浪漫派 文學運動의 出發부터 文學의 本質的 理論과 文學觀 文學理論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文學藝術 그 自體에 對한 美學的 哲學的 解釋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現代文學에서 제시되고 있는 여러가지 問題로 하여금 文學의 本質的 問題解決 없이는 전혀 皮相的인 論證이 되겠기 때문이다. 그것은 文學에 있어 時代的 思想이 갖는 問題性이 흔히 文學 그 本質的 主張과 關係없이 단지 主張하려는 思想 그 自體만을 解決하려 하므로써 根本的인 것과 은연중에 거리를 낳고 다시 새로운 問題를 낳게 하기 때문이다.

浪漫主義의 本質的 問題는 文學이 가지는 本質的 問題와 相通하는 要因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浪漫主義가 가지는 思想的 要素를 完全히 파악하므로써 文學自體의 本質을 理解하게 되고 아울러 現代文學의 이해를 위한 길을 마련해 보려는 것이다. 물론 낭만주의의 擴大가 유럽에 대하여 傳統의 崩壞를 초래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의미의 再生을 가지고 왔는지는 아직 問題의 여지를 던져주고 있다. 卽 I. Babbit의 主張은 浪漫主義를 病弊라고 지적했던 Goethe와 같이 순수한 精神活動의 規範을 파괴하는 自由放任主義를 초래한 것이 바로 낭만주의의 產物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J. Barzun은 浪漫主義를 찬양하여 남은 規範을 무너뜨린 위대한 再建의 時期라고 박수를 보내고 있다. 그에 의하면 形式의 柔軟性, 實驗의 自由, 약동하는 無限的인 무대, 可能性의 無制限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批評家들의 對立的인 見解는 여전히 우리들로 하여금 肯定的, 또는 否定的, 立場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지만 또한 하나의 本質的 事實을 안겨주기도 한다. 그것은 두 主張이 꼭 같이 現代의 文學藝術과 浪漫主義와의 關聯性을 철저

하게 證明해 주고 있다는 事實이다. 다만 그 評價의 내용이 나쁜 영향이거나 아니면 좋은 영향이거나 하는 극히 주관적 해석이 남을 뿐이다.

## 2. Romantik 과 Roman 의 關係

19세기 浪漫主義 時代에 접어 들면 우선 Roman 이라 일컫는 長編小說이 量的 豊요함을 맞게 된다. 勿論 Roman 이 그 以前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獨逸文學은 詩와 戯曲으로 代表되어 왔다. 그것이 浪漫主義에 이르면서 Roman 과 代替되는 현상은 거기에 어떤 聯關的인 一面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 Roman 이란 語意는 獨語의 Erzählung 에 해당하지만 虛構的인 分野에서는 Erzählung 보다 훨씬 包括的이다. 그러므로 Roman 은 곧 Novelle 즉 短編小說과 對稱되는 것으로 보통 長編小說이라고 불리어진다. Romantik 과 Roman 과의 語彙的 關係는 Roman 이 元來羅典語로 쓰여진 文藝物을 眞語라고 부르는데 對한 方言的 文藝物을 가리키는 것으로 史學家들은 밝혀주었다. 그러므로 Roman 과 Romantik 과는 語義的인 面에서는 직접적인 關係를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단지 Roman 이 내포하고 있는 本來的 의미 卽, 中世的 武勇談 그리고 幻想的 冒險類를 가리키는(이야기)가 곧 낭만 주의자가 주장하는 철저한 主觀的 空想的 그리고 散文的인 自由精神과의 類似性때문에 낭만주의를 곧 Romantik 이라고 하지 않았는지. (Romantik 의 命名은 Schlegel 형제가 최초로 붙인 것이라고 한 것이 거의 定說로 되어 있다) Romantik 은 결코 Roman 의 派生語가 아닌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Roman 과 Romantik 과의 關係를 Roman 의 장르의 特性, 낭만주의 時代인 19세기의 社會的 特性에서 究明해야 할 것 같다. 19세기의 西歐社會는 급속한 科學文明의 발달과 아울러 社會는 封建的 制度에서 解放된 市民階級の 發展期였으며 한편 政治的으로 列強의 角逐이 극심한 격동기이기도 했다. 浪漫主義는 이 무렵 合理的 理性主義와 빈틈 없이 다듬어진 形式主義를 거부하고 철저한 主觀과 自由를 환영했다. 그 결과 누구의 주장과 動議없이 즐겨 이용한 것이 Roman 즉 長編小說인 것이다. 이 兩者 사이에는 因果的 關係보다 좀 더 有機的 共通性을 인정할 수 있다. 散文은 本來 大衆的 氣質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散文이 갖는 包容力이 큰 때문 만이 아니라 散文의 表現形式이 바로 市民的 屬性과 一致하기 때문에 이다. 일찍이 文學藝術의 출발은 韻文에나 두었고 韻文은 지극히 形式化되어 貴族階級の 奢侈品으로서 市民階級과는 전혀 世界를 달리하였다. 市民은 社會的 勢力이 점차 자신에게 集約된과 더불어 韻文 文學과의 妥協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文學이 그들의 것이 되기 위하여, 말하자면 市民生活를 主題로 한 市民의 本質을 表現하기에는 韻文과 같은 形式上의 拘束은 너무나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科學文明은 넓은 世界를 좁게 만들었다. 市民社會의 形成은 個人과 集團을 다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움직임을 준다. 個人의 多각적인 經驗은 섬세한 感情을 유발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社會現象과 人間의 心理的 갈등을 구체적으로 記述하려 할때 散文은 그 직접적인 수단이 되었고 形式은 Roman 을 선택하여야 하는 이른바 有機的 關係라고 말할 수 있다.

市民이 文學藝術의 主題로서 登場할 때 形式的制約이 얼마나 본질적인 障礙가 될 것인가? 그리고 律文이 强요하는 부담은 어쩌면 市民精神에의 抹殺을 초래할 것이다. 물론 낭만주의가 Realism 과 같이 市民生活의 現實을 그대로 描寫하는 寫實性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現象에서 받

는 이미지는 곧 主觀的 想像과 關係를 갖기 때문이다.

이상은 文學의 장르로서 Roman 이 19세기적이란 意味를 頂托한 것이다. 그러나 이 時代의 Roman 이 결코 質的으로 우수한 藝術作品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浪漫主義時代의 長編小説은 量的 生産에 비하여 성공한 作品은 드물다. 그 理由는 낭만주의 作家의 作品이 理論과 同一한 步調로서 藝術的 技巧과 作品으로서 形象化가 아직 未熟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文學論的 理論確立에 獨走한 나머지 作品에의 熟練이 미치지 못한 時間的인 問題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어쩌면 아직 健在한 Goethe 의 위대함에 짓눌린 一面도 과소 평가할 수 없다는 評者들의 의견도 있다. 또 하나의 觀點은 獨逸文學의 傳統에서 찾아본다. 오래지 않은 獨逸文學의 傳統이 主로 詩나 戯曲으로 성공하여 왔고 그중 몇편의 小説手法이 소위 <教養小説, 教育小説—Bildungsroman>로서 人間의 一代記에 기울어져 있었던 것도 낭만주의 小説이 世界文學으로서 발전할 수 없었던 要因이기도 하다.

이러한 여러가지 要因이 後期 浪漫派를 거치는 동안 叙情詩와 短編으로 오히려 浪漫主義文學의 主流를 形成해 나갔다.

### 3. Roman 에 對한 考證

Roman 이란 오늘날 長編小説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Romantik 가 思潮的으로 定立되기 훨씬 이 전부터 쓰여진 것이다. Roman 이란 語源은 佛蘭西의 古語로서 “方言”이란 뜻이었다. 그것이 指稱하는 것은 母語인 羅典語에 對하여 그 派生語인 佛語, 伊語, 西語等を 通俗語라고 하여 聖書를 비롯한 모든 學問藝術의 分野는 오직 羅典語로서만 表記함을 正則으로 삼았었다. 그후 14, 5 세기에 의르러 점차 이름바 通俗語로서 기술되는 書體를 모두 Roman 即 “通俗讀物”이라고 지극히 輕蔑적인 用語로 불렀던 것이 그 出發이다. 물론 그때의 Roman 은 主로 古代의 傳統의인 것, 中世의 冒險的인 것과 奇怪한 空想的인 것이 대부분 그 素材였던 바 오늘날의 散文小説이 갖는 虛構性과 깊은 연관성을 목살할 수 없는 것이다. 精神史에서 浪漫主義라 함은 18세기말 부터 19세기 전반에 걸쳐 西歐에 퍼진 美的 精神運動을 망라한 것을 通稱하고 文學에서 뿐 아니라 音樂, 美術, 建築에 이르기까지 包活的인 思潮이다. 그 根源은 18세기 초기의 啓蒙主義(Anfklärung)에서 찾을수 있으나 넓은 의미에서 우리 人間의 精神構造 그 自體에 내포된 하나의 기정 屬性이라 할 수 있다. 即 啓蒙主義는 教會와 絶對的인 支配權力을 휘둘렀던 中世思潮에 對抗하여 人間理性의 最優位를 강조하고 마침내 人間을 未知의 天國(教會)으로 부터 地上(理性)으로 옮겨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 結果 理性은 合理主義로 지나치게 굳어져 모든것을 合理性에 의하여 人間을 또한 支配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다시 人間은 非合理性에 의한 길을, 즉 情感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人間의 構造가 理性과 情感 그리고 合理性과 非合理性으로 이루어진 存在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絶對的 優位, 따라서 한쪽의 극단적으로 억압되면 반드시 反撥이 생기게 마련이다. 즉 合理主義에의 獨走는 非合理的인 것에 의하여 저지되는 交替的 性質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現象으로 나타난 것이 獨逸의 啓蒙主義에 對한 1870年

代의 Sturm und Drang 운동인 것이다. 이때 Goethe나 Schiller의 初期作品이 것처럼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理性的의 重壓에 허덕이든 世紀의 우울정에 하나의 突破口를 제시한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Sturm und Drang은 浪漫主義의 先驅者이며 그 想像은 同一한 系列이라고 풀이할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Sturm und Drang은 너무나 急進的이었기 때문에 Goethe와 Schiller는 이를 극복하고 美的 調和의 世界 即 Klassik으로 나아갔다. 더욱이 그들의 文學이 너무나 위대하였으므로 反理性的인 運動은 빛을 잃고 말았던 것이다.

Klassik은 어찌던 理性과 感情의 調和 即 合理的인 Aufklärung과 非合理的인 Sturm und Drang의 兩極端의 均衡을 이룬 가장 理想的인 藝術이라 하겠다. 그러나 藝術活動은 그것이 비록 최고의 理想이라 할지라도 한곳에 머물어 恒久的인 滿足感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다. 그것은 社會的 發展과 같이 既成에 對한 파괴로서 前進을 도모한다. 그러므로 하나의 思想이 定立되고 調和의 美가 完成하면 그것이 正이던 不正이던 다시 不均衡의 高地를 占領하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浪漫主義의 出發은 멀리 啓蒙主義에서 그리고 古典主義와의 對立的 關係에서 定立된다고 볼수 있는 것이다.

#### 4. Romantik의 哲學的 解析

浪漫主義의 發端은 啓蒙主義의 절대적 理性 偏重에 對한 感情의 認識 合理主義에 對한 非合理主義의 反對及 付란 面에서 前述한바 Sturm und Drang 운동과의 共通性을 인정하지만 운동에 對한 根本的인 理念에 있어서는 質을 전적으로 달리하고 있다. 即 前者가 合理主義에 의하여 剝奪된 政治와 社會에 對한 感情의 폭발을 文學的 目的으로 한테 對하여 後者는 人間과 自然을 對象으로 한 哲學的 探求에 그 目的을 두고 있다. 이러한 面에서 볼때 Klassik과의 聯關을 일단 認定 할수있다. 그러나 追求하려 하는 理想은 사뭇 그 方向을 달리한다. Klassik이 客觀的이고 靜的이며 視覺的, 統一的인 調和를 表現하려는데 對하여 Romantik은 극히 主觀的이고 流動的이며 音樂的, 斷片的, 觀念을 表現하려는데 그 核은 전혀 異質的이라고 볼수있다.

獨逸浪漫主義는 Fichte에 의하여 哲學的 基礎를 굳히고 있다. 그는 Kant가 해결하지 못하고 둔 <物自體—Das Ding an sich>대선에 認識의 主體로서 <自我>에다 絕對性을 두었다. 하나의 認識이 그 보다 先行하는 또 하나의 認識 即 經驗에 기초를 두고있는 限 다시 그 認識을 가능하게 하는 先行段階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파고들면 결국 궁극적인 어떤 根本에 도달하게 될것이다. 이 根本에는 이미 어떠한 經驗도 어떠한 事物에도 구속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自我의 <絕對的 自由>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浪漫主義의 理論家인 F. Schlegel과의 觀點의 差異를 빚게 된다. Fichte는 認識의 根本이라고 본 自我의 <絕對的 自由>는 결코 個人의 主觀이 무엇이던 認定해도 된다는 것, 即 <任意的 自由>가 아님을 강조한다. 이에 對하여 F. Schlegel은 Fichte의 自我의 <絕對的 自由>를 文學에 導入하여 自我의 自由는 主觀的 絕對的 認識으로서 絕對的 自由라고하는 浪漫主義의 主觀性을 철저히 옹호하고 있다. 예를들면 하나의 約束이라 할지라도 내가 금명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곧 금이 될수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



론 이것은 극단적인 비유일 뿐 浪漫主義는 이같이 天才의 想像力을 前提로 하고 이 天才의 空想에 完全한 自由를 認證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天才의 空想에 미치지 못하는 人間은 啓蒙主義의 俗物이라고 까지 하였다. 이와같이 獨逸 浪漫主義派의 藝術至上主義는 지극히 虛構的인 主觀性을 깊이 바탕에 깔고 있다. 여기에 Schlegel이 말하는 <Romantische Ironie>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는 Ironie를 설명하기를 美的狀態는 Herz(人間의 感情)에 의하여 솟아나는 한편 Intelekt(主知的 理性)에 의하여 Romantik Ironie는 不斷한 自己破壞와 自己超越에 의해 完成되며 이러한 경지에 이르러서 비로소 <藝術的 自我>는 絶對的 自由를 누릴수 있다고 하였다.

浪漫主義 理論을 論함에 있어서 Schelling의 自然哲學을 또한 소홀이 할 수 없다. Schelling은 自然界 全體를 하나의 有機的 生命體라고 생각하였다. 그에 의하면 거기에는 두가지의 서로 相反하는 힘이 存在한다. 그 두 存在는 다시 서로 복잡하게 作用하여 生命은 끊임없는 流動的인 狀態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힘이 均衡을 유지할 때 個體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이 均衡을 잃게 되면 다시 原狀으로 돌아간다는 說이다. 이를 生物體에 적용하면 主觀도 또한 生의 한 狀態로 보아야한다. 無生物은 이 여러 힘이 均衡을 유지한 채 凝結한 것으로 全體의 生命을 지지하는 一部라고 하였다. 이 힘의 相反的 主張은 당시의 自然과학의 成果에서 나온 것이며 동시에 自然科學과 心理學에 反作用을 일으켜 새로운 進歩를 추구한 계기가 되었다.

浪漫主義는 Schelling이 말하는 이들 諸 힘의 流動을 統一로 추구하는 高次的인 힘으로서 <宇宙靈>을 생각했다. 이 自然觀은 바로 詩的 要素를 함유하고 있다고 浪漫主義者들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 5. Klassik 와 Romantik 의 關係

文學思潮에서 말하는 浪漫的이란것은 낡은 것에 對한 새로움의 뜻을 포함하여 흔히 Klassik과의 對立關係에서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첫 證人을 우리들은 F. Schlegel에서 얻을 수 있다. Rousseau가 人間으로부터 탈취당한 幸福을 貴族文化의 퇴폐한 生活에서 原始的인 調和를 이룸으로서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自然生活을 對立시킨 것은 독일에서도 그 반향은 재빨리 일어났다. Lessing, Winckelmann 같은 회람 研究家들은 회람을 統一과 調和에 찬 행복의 原產地로 내 세운 것은 古代를 Rousseau의 自然的 生活에 결부시킨 理論이라 하겠다. 그들은 한 걸음 나아가 Rousseau의 自然觀에서 文化的 空白을 보충하여 文化와 教養을 함유한 自然的 生活을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의 古代와 近代와의 對立, 統一과 乖離, 調和와 分烈과의 對立은 Goethe, Schiller. 그리고 W. Humboldt 들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理解되었다. F. Schlegel 역시 古代를 自然的, 客觀的, 普遍的이라 하였고 近代를 人爲的, 關心的, 個性的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들의 영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 古代의 詩는 自然의 衝動에서 일어나고 無意識的이며 個人은 거기에 이미 存在하지 않는다. 이에 對하여 近代의 詩는 藝術的 教養에서 生産되며 自身의 흥미 또는 關心을 강렬하게 表面에 내세워 또한 客觀性을 용납하려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規定은 애당초 Kant의 美學說과 結託하여 近代의 詩를 美가 아니라고 배격하고 古代

의 詩와의 對立조차 인정하려 않았다. 그러나 Schiller 가 論文<素朴의 詩와 感傷詩 Über naiver und sentimentalischer Dichtung>에서 비로소 古代의 素朴의인 詩에 對하여 近代의 感傷의 詩를 독자적 立場에서 肯定하기에 이르러 近代의 詩를 評價의 對象으로 삼지 않을수 없었으며 마침내는 近代의 詩는 古代의 詩보다 優越함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Goethe 는 古典과 浪漫으로 文學을 區分하는 것은 元來 Schiller 와 自身 Goethe 에게서 비롯되었다고 主張한다. <언제나 客觀적으로 보는 것이 자신의 詩의 主義이며 이에 反하여 Schiller는 主觀에 依한 詩를 쓴다. 결국 Schiller 는 自身の 詩의 態度를 옳다고 하는 그것을 변호하기 위하여 그런 論文을 썼다. 이를 F.Schlegel 형제가 이 觀念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킨 것이다. 그것이 오늘날 세상에 확대된 것이다>라고. 그러나 위대한 Goethe 의 主張일찌라도 이 問題에 있어서만은 전혀 論理的 妥當성을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Schiller 는 (浪漫的)이란 말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으며 또한 F.Schlegel 이 내세운 理論은 Schiller 의 素朴文學과 感傷文學 보다 훨씬 적극적이며 진보한 것이다. Schiller 에 의하면 古代에 있어서는 自然은 人生의 가운데에 있었다. 그러나 近代에 이르러 自然은 점차 人生에게서 살아져 갔다. 우리들은 이제 自然을 人生의 外部에서 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古代의 사람은 自然에 感受되었으나 近代人은 自然을 感受한다. 그러므로 詩人은 自然의 保管者이며 따라서 詩人은 自然이거나 또는 잃어버린 自然을 찾아오는 者이다. 그리하여 自然인 者는 곧 素朴詩人이 되고 잃어버린 自然을 구하는 者는 感傷詩人이 된다고 그는 說明하고 있다. 하지만 F.Schlegel 은 두 경향의 對立을 더 深化시켜 두 世界의 文化的 特質과 그 美的 印象까지 對立的 關係를 說明하고있다. 그는 결국 近代 詩의 가장 이상적인 形式으로서 Romantik 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Roman 의 典型的인 形式으로 Goethe 의 <Wilhelm Meister>을 지적, 거기에서 얻어지는 一般觀念을 곧 浪漫的 內容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Roman 은 종래의 敘事詩보다 훨씬 自由롭고 劇詩에 비하여 훨씬 主觀의인 伸長性和 屈折性이 짙다고 말한다. 말하자면 詩와 哲學을 자유로이 配合할 수 있는 무한한 形式으로서, 人生을 유기적으로 그 속에 포괄할 수 있는 形式이라고 보는 것이다. F.Schlegel 은 이와같이 Klassik 과 Romantik 을 對立關係에서 說明한 바로 主唱者이며 Schiller 은 단지 浪漫的인 것의 의미와 가치를 인식시키는 하나의 촉매적인 역할을 한것이다. 뿐 아니라 그는 이 意義와 價値와의 認識을 Fichte 의 哲學에서 哲學的 기초를 가다듬어 비로소 확립한 것이다.

W.Schlegel 은 Klassik 과 Romantik 과의 對立理論이 대체로 확립한지 10여년이 지난 뒤 著書 <劇藝術 및 劇文學 講義— Vorlesungen über dramatische Kunst und Literatur. 1809>에서 문체의 對立關係를 아주 明析하게 言及하고 있다. 이제 그 論旨을 일목 요연하게 分析해 보자.

1. 마음의 獨立과 獨創이란 古代의 古典에 對한 존중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작품에는 近代的인 個性을 浮彫시키는 것이다. 그 특수한 정신적 경향이 浪漫的이다.

2. 和蘭의 批評家 Hemsterhuis 는 이미 古代의 繪畫가 너무나 彫刻的이며 近代의 彫刻은 너무나 繪畫的이라고 말했는데 확실히 우리들은 古代의 藝術과 近代의 藝術을 조각적인 것과 회화적인 것과의 對立에서 찾아 볼수 있다.

3. 藝術에 있어서 人間의 理想은 모든 힘의 完全한 均衡, 즉 自然의 調和에다 두었으나 近代의 人間은 그러한 理想을 불가능하게 하는 內部的 不調和를 自覺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의 詩의 노력은 우리들을 分割하고 있는 그러한 두 世界를 調停하는데 기울이고 있다. 그러한 感覺의 印象은 이른바 보다 高次的인 感情과의 신비로운 結合에 의하여 신성하게 되어지고 한편 영혼은 豫感과 無限의 直觀과를 눈에 보이는 世界로부터 借用한 象徴속에다 形體化 하는 것이다.

4. 그러한 意味에서 희랍의 藝術에는 形式과 素材사이 無意識的인 一致가 있었는데 反하여 近代의 藝術은 그 兩者를 一致시키려는 고민을 갖는다. 똑 같은 의미로서 희랍의 藝術은 有限性에서 가장 完全한 것을 創造하였지만 近代의 精神은 無限한 것을 求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참다움을 볼수 있다.

5. 그러므로 古代의 藝術은 명량하고 感覺的이며 形體的인데 對하여 近代의 藝術은 우울하고 無形的이며 內面的이다. 또한 古代의 것이 直觀的인데 反하여 近代의 그것은 內觀的이며 憧憬的이다.

6. 古代의 藝術은 一致하지 않은 것을 배척한다. 그러나 浪漫的인 藝術은 혼합을 좋아한다. 自然과 藝術, 詩와 散文, 眞實과 諧謔, 靈感과 感性, 地上과 天上, 죽음과 삶……등 친밀하게 융합한다.

7. 古代의 藝術은 法則과 秩序를 사랑한다. 그 가운데 事物의 변하지 않는 本質을 그리려고 하지만 浪漫的 藝術은 秩序를 가진 宇宙의 內面に 숨겨져 있는 混沌에의 음밀한 表現이며 언제나 다정한 경이의 탄생을 위해 노력한다. 前者는 보다 單純하고 分明하며 각각의 완전한 存在的 自然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後者는 斷片的인 外觀에 불과하지만 宇宙의 秘密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왜냐하면 概念이란 각각 다른 事物을 하나하나 묶는데 그침으로, 그러나 眞理란 자기 흩어져 그 自體만으로는 存在할 수 없다. 하지만 感情은 모든것을 모두 함께 순간적으로 認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對立的 關係를 주로 民族과 宗教, 時代와 風土와의 特質에다 두고 있다. 宗教는 人間存在의 根源이며 <그 意志로부터 독립된 無意識的인것 까지 포함하여 모든 宗教를 人間으로부터 除外해 버리던가 아니면 宗教는 人間의 內面的 本質을 갖추지 않은 皮相的인 것으로 그리던가, 그리하여 그 中心이 우동되면 人間의 능력과 감정과의 모든 조직은 새로운 형태를 가지게 된다는 극히 抽象的인 觀念을 열거 하고 있다.

이러한 對立的인 關係를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Staël 부인의 著 <獨逸에 관하여 Del, Allemagne>중에 古典的인 詩와 浪漫的인 詩에 관한 것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그녀는 W. Schlegel의 친구로서 그리고 아이들의 家庭教師로서 8年間の 交友를 가지는 동안 W. Schlegel의 理論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녀는 佛蘭西의인 밝은 理解力을 첨부하여 한결 우리들의 이해를 도와주고 있다.

Staël 부인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教와 異教, 북쪽과 남쪽, 古代와 中世, 騎士道와 희랍, 로마의 制度등이 文學의 世界에서 서로 分離되어 있다는것을 認定하지 않는다면 古代의 취미와 近



(9)

대의 취미는 哲學的 입장에서 判斷하기란 전혀 不可能 하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對立的 關係를 정리하고 있다. 즉

1. 古代 文學에 있어서는 人間은 自然과 同一視 하여 運命의 필연적 결과에서 파악되어야 했고 浪漫的 文學은 人間은 自然이 아니라 外的 어떠한 속박도 받지 않은 自由로운 精神的 存在로 파악되는 것이다.

2. 따라서 古代의 文學은 性格보다 內容이 중요시 되는데 反하여 近代의 文學은 오히려 內容 그것보다 性格이 더욱 重要視 되어야 한다.

3. 古代의 마음은 形體的이며 그 行動은 직접적이고 結果的이다. 그리스도教에 의하여 展開된 近代의인 마음은 끊임없는 反省과 참회속에 배회한다. 즉 古代의 마음의 行方은 有限과 形體로 향하는데 대하여 近代의 마음은 無限과 그림자를 注視하고 있다.

4. 藝術에 對한 効果의 根源은 古代에 있어서는 運命이 支配的인데 反하여 近代에 있어서는 神의 配慮에 있다. 運命은 人間의 情感을 무시하고 神은 情感에 의하여서 만이 行爲를 判斷한다.

5. 古代의 詩는 단순하면서도 生命에 가득차 있다. 近代의 詩는 單純함이 자칫 乾燥와 抽象으로 變質하기 때문에 즐겨 戀愛와 不幸과 그리고 冒險과 哀憐을 취급하기 마련이다. 古代의 詩는 눈에 보이는 物體처럼 직접적이고 명백한 것이지만 近代의 情感은 구름속에 가리어 지지 않기 위하여 무지개의 彩色을 필요로 한다.

6. 古代의 詩를 彫刻에, 近代의 詩를 繪畫에 비유함은 받아 들일수 없는 理論이다.

7. 이러한 對立的 關係를 일반적으로 人間精神의 進行, 卽 異教로 부터 그리스도教, 自然에서 神性에의 經遞에서도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間에 趣味의 相違는 단순히 우연한 原因에서 뿐아니라 또한 想像과 思惟와의 源泉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은 주의할 만 하다.

8. 그러므로 가장 중요하게 받아 드려야 할것은 古代文學과 近代文學과의 對立이 아니라 古代의 文學은 導入된 것인데 反하여 浪漫的 文學은 우리들이 사는 이땅에서 낳아졌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우리들의 宗教와 歷史위에 가꾸어진 나무로서 앞으로 더욱 자라가는 것이다.

## 6. 結 —20世紀文學과 關係—

浪漫主義 文學運動은 19世紀 前半이 채 가기 前에 그 勢力은 弱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寫實主義 (Realismus)가 서서히 主流를 形成하기 시작해다. 그러나 이로써 浪漫主義의 本質的 思想과 形式이 결코 살아져 버린것이 아니다. 寫實主義가 낭만주의에 대한 거센 反발로서 대두 되었던 초기에는 낭만적 作家들은 時代錯誤的인 亞流로서 취급되어 조소의 對象이 되기도 했다. 現實과 現實의 精確한 포착 만이 오직 藝術家의 임무라고 주장하는 사실주의 작가나 자연주의 작가는 藝術은 想像力에 의해서, 觀念的인 思考에 의해서 文學을 定義하러 했던 浪漫派의 原理와 정면으로 對立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랜 시간적 經過에서 그 두 思想의 對立은 平行線的인 對立關係가 아님이 밝혀졌다. 兩者間에는 다소의 融通성과 交雙點이 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限 文學的 本質은 成立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게되었다. 즉 Realism은 現實을 사진

처럼 實似하므로써 作品이 完成된다는 것, 그것이 文學과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된 것이다. 오직 作品이란 藝術家의 想像力은 최소한 어떠한 名稱으로 옮긴다 할지라도 作品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그 點이다. 이러한 사실은 自然主義의 旗手인 Emil Zola의 理論에서 금방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近代의 藝術家는 오로지 현실을 보는 科學者的 觀察이 알파이고 그것의 精確한 묘사만이 오메가라고 主張하면서도 그는 그 藝術을 가리켜 Temperament 즉 <藝術은 詩人의 氣質을 통하여 관찰한 自然의 한 조각>이라고 한말은 은연중에 主觀性을 끌어 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註釋한다면 個個人의 氣質은 현실의 철저한 客觀的 描寫보다는 오히려 客觀性을 判斷하는 主觀的 印象이 더 크게 作用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結果가 19세기 말에 다시 浪漫主義의 기치를 높이 들게 하였는지 모른다. 그것이 文學 思潮史에서 <新 浪漫主義>라고 불리어진다. 獨逸 文學에서 Hoffmannstahl, George 그리고 젊은 시절의 Rilke 등 다채로운 詩人들의 이름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불란서의 象徵主義(Symbolismus)에 있어서도 그것이 비록 自然主義의 반발로서 등장한 時期的 문제를 차치하고서도 얼마든지 Romantik의 遺産을 찾을 수 있다. 詩人이 갖는 形而上學的 宇宙觀, 美에 對한 理想主義的 贊美 現象의 저쪽편에 있는 神秘的 信念 그리고 詩人이 知覺한 것을 象徵에 의한 現象化 등은 모두 낭만주의가 가졌던 文學觀과 別個의 것이 아니다. 超現實主義(Surrealism)의 문제에 있어서도 낭만주의와 동일한 要因을 지적할 수 있다. 20세기 文學의 대부분은 낭만주의의 波長과 無關한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그 無政府主義的인 個人主義, 비약적인 想像性, 情感의 激烈性등등 일일이 예거할 수 없을 만큼 殊한 특징들이 浪漫主義 운동의 극단적인 表現으로 받아들여졌던 것과 同一性을 지니고 있다. 즉 새로운 形式과 象徵的 모색, 時間과 空間에 대한 實驗的 태도 이미지의 聯想作用을 이용한 有機的 構成, 神話的 再 解釋과 導入 등 現代文學이 갖는 問題性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浪漫主義는 단순히 19세기에 의한 文學思潮로서 있었다가 살아진 歷史的인 의미에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文學이 갖는 本質的 問題로서 정리되어 現代文學의 理解와 研究에 공헌해야 될 것이다.

#### 參考書籍

1. Babbitt, Rousseau and Romanticism.
  - Eichner, F. Schlegel's theory of Romantic Poetry
  - B. Boesch, Der Deutsche Literatur Geschichte in Grundzügen.
  - G. Stefansk Das Wesen der deutschen Romantik
  - F. Strich, Deutsche Klassik und Romantik,
- 韓國 獨逸文學會刊 獨逸文學